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지부교섭 속보

5호

2025.05.22(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5차 지부교섭_ 사측 교섭위원 일부 일방적 불참 / 사측 제시안 없음]

노사 신뢰에 금갔다



일방적인 불참 무례하다

5차 지부교섭이 무겁게 진행됐다. 한온시스템 사측 교섭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교섭원칙 정할 때부터 사측 교섭위원들의 불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는데 매 교섭 때마다 불참하는 사업장들이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번 교섭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측 교섭위원은 차기 교섭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한다.

제시안도 없었다

원래 이 날 교섭에서는 사측의 첫 번째 제시안이 제출됐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빈 손이었다. 사측이 아무 내용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 불참 사

태까지 벌어져 교섭 내용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동안 대전충북지역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5차 교섭에서 노사간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 한번 깨지기는 쉬워도 다시 쌓아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신뢰다.

차기 교섭에서 일괄 제시안 제출해라

차기 교섭부터는 진짜 내용있는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측이 의미있는 제시안을 준비해야 한다. 임금인상안도 지부교섭에서 논의한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성실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차기 교섭 : 5/29(목) 14:30 한국KDK

5차 교섭 속기록

일방적인 불참 사과하라

노 : 멀리 옥천까지 왔는데 반갑다고 하기 어렵다. 사측 교섭위원 한분이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교섭원칙 정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지회가 확인했을 때만 불참을 인정한다고 했다. 한은지회 통해서 교섭 전날에 연락받았고, 사용자협의회 통해서도 교섭 당일에 통보받았다. 오늘 불참한 교섭위원이 전년도에도 일방적으로 교섭자리를 떠나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간 적 있다. 상당히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교섭 때마다 사업장 돌아가면서 한두분씩 계속 빠지고 있다. 이래서 지부교섭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 계신 성실히 참석하고 계신 사업장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불뚱이 튀는 것 같지만 공동의 책임으로 이 부분 해결해주셔라. 사용자협의회 안에서도 강하게 관리해주셔라. 계속 이렇다면 일주일에 두 번 교섭하자. 내년 지부교섭은 일주일 두 번 교섭하는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노측 교섭위원도 시간 끌고 싶지 않다. 같이 한해의 큰 농사를 짓는 지부교섭인데 그 위상에 대해서 사측 교섭위원도 같은 마음이길 바란다. 회사측 오늘 제시안 없다고 들었다.

사 : 그렇다.

노 : 사용자측도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최소 며칠 전에 상황 공유하면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오늘 참석한 사측 교섭위원들도 무시하는 행태다.

사 : 이런 불참이 원칙적으로 이해 안된다. 한은 교섭위원 불참을 어제 지회 통해서 지부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 걸로 지레짐작했는데 차후에는 직접 챙기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 없도록 소통

하겠다.

노 : 사전 소통도 문제였지만, 한은 사측 교섭위원은 불참 사유가 안된다. 사전에 지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지부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에 불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 한은 불참사유는 그렇지 않다. 상건례 때부터 강조한 게 불참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할거면 내년 교섭 때는 불참이 발생하면 차주에 2회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겠다. 사측 교섭위원들 내부에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강제해주셔야 한다. 노측 사전회의에서 여러 가지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 : 최대한 교섭위원 참석하도록 하겠다.

노 : 강력하게 조치해주셔라. 한은 교섭위원 작년에 중앙교섭도 불참하고 지부교섭에서도 중간에 나간 적 있다. 한번만 더 이러면 한은 타격투쟁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확실히 조치해주셔라. 다음 교섭에 꼭 참석해서 사과해야 한다.

차주 교섭에서 일괄제시 하시고 임금인상안도 함께 제출해주셔라. 임금 인상안도 지부교섭에서 제시하고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 논의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든가 여러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

사 : 6/5 지부교섭일에 JCC가 휴무다. 교섭 차수 인정하고 건너뛰는 것이 어떤가?

노 : 일방적인 불참 때문에 용인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현재 상황이 어려운 JCC가 요청한 것이라 인정하기로 했다.